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960만 km ²	G D P	4조 9,090억 달러 (2009년)
인구	13.5억 명 (2009년)	1 인 당 GDP	3,678달러 (2009년)
정치체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통화단위	元 (RMB)
대외정책	전방위 실리 외교	환율(달러당)	6.83 (2009년 평균)

- 중국은 한족(92%)을 포함한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탄, 석유, 철광석 등의 천연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의 기치 아래 동부 연해지역에 한정하여 개혁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낳았음. 최근 균부론(共富論)으로 경제발전을 전환하여 선부론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소외되었던 서부지역의 대개발, 동북지역의 재건에 이어 중부지역의 도약 등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함.
- 특히 2002년 후진타오(胡錦濤) 정권 등장 이후 기존의 양적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질적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규제 강화 및 에너지원 확보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 중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9%대의 경제성장률 지속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성장동력이었던 수출이 급속하게 둔화됨. 이에 따라 2008년 말부터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의 실시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9.1%를 기록하였음.

- 중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등의 경기침체에 따라 2009년 수출이 전년 대비 16.1% 감소함.

- 내수진작을 위한 가전과 자동차 등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급으로 소매 판매율의 증가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함.

○ 2010년에는 중국 정부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보조금 정책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수출 증가도 회복되고 있어 9.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재정적자를 지속할 전망

○ 급격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실시로 재정수지는 2009년 GDP 대비 2.2%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제성장률	12.7	14.2	9.6	9.1	9.9
재정수지 / GDP	-0.8	0.6	-0.4	-2.2	-2.2
소비자물가상승률	1.8	4.8	6.0	-0.7	3.0

자료: IMF, EIU.

- 2007년에는 고도성장과 세수확대에 힘입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0.6%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2008년에는 -0.4%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도 중국정부는 인프라확충 외에 조화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의료,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증대로 재정수지는 GDP 대비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식품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 2007~08년 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5.4%에 달하였으나, 2009년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 등 가격하락으로 -0.7%를 기록하였음.

○ 2010년 소비자물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식품가격 상승으로 정부 목표치인 3%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 중국인민은행이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기준율을 총 1.5% 포인트 인상하는 등 인플레이션 억제조치를 실시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과 미흡**

○ 고투입, 고비용의 양적 성장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으로 성장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국유기업 중심의 대형화를 통한 산업집중도 제고와 기술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 2006년 ‘생산능력 과잉업종의 가속 구조조정’에 관한 통지’에서 토지공급 및 대출제한에 이어, 2009년 ‘일부 업종의 생산능력 과잉과 중복건설 억제로 건강한 산업발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통해 시장진입 제한, 환경규제 및 M&A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에 주력하는 지방 정부의 인식으로 인해 가시적 성과가 미흡함.

□ 수출과 투자 중심의 불균형한 경제성장 구조

- 2008년 하반기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대외수요 위축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됨.
-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를 억제하기 위해 4조 위안의 경기부양을 통한 인프라 확충과 가전, 자동차 등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급으로 2009년 9.1% 성장을 달성함.

□ 노동자 권익강화로 인한 노동유연성 악화

- 중국정부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임금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노동 관련 제도가 2008년부터 노동자 권익보호 위주로 바뀌었음. 또 노동자의 인식과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분쟁 사례가 급증하는 등 노동유연성이 악화되고 있음.
- 한편, 중국정부는 2009년에 향후 5년 동안 임금의 100%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2010년 1~7월 기간 중, 21개 지역의 최저임금이 평균 16.7% 인상되었음.

□ 선진국과의 무역 및 환율 관련 마찰 증가

- 위안화 저평가에 따라 주요 교역국인 미국, EU 등과의 통상마찰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높은 수입 관세 부과,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인체 유해물질 사용으로 인한 수출제품 안정성 논란도 확대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균형발전 등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추진

- 중국정부는 지역간, 도농간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부론으로 경제발전 정책을 전환하였음. 이를 통해 그 동안 소외되었던 서부지역의 대개발, 동부지역의 재건에 이어 중부지역의 도약 등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서부대개발 등의 초대형 인프라확충 사업과 도시화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내수시장의 확대 추진

- 2009년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내수부양 정책으로 9.1%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도시화 추진, 최저임금 인상, 의료 및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의 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수출 상품구조의 고도화 추진

- 노동집약적 산업 등의 저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억제하는 한편, 첨단 기술 제품 수출을 촉진하고 있음.
- 저부부가가치 제품 수출 시에 증치세 환급 비율 인하 및 석탄, 석유 등 제품 수출 시에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에는 증치세 환급 비율을 확대함.
- 이에 따라 수출 주력 품목이 섬유 등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가전을 포함한 전기전자, 기계류 등 기술, 자본집약적 제품으로 전환됨.

다. 정책성과

□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책 실시

-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확충과 내수진작 등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음.

- 4조 위안의 고정자산투자는 2009~10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철도, 도로 등 인프라투자에 1.8조 위안,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사업에 1조 위안 등을 포함함.
- 소비촉진을 위해서 농민의 가전,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한편,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지급된 9조 5,000억 위안 규모의 은행대출금 중 일부가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대외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등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님.

□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을 인상과 부동산 부문 규제

-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로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기준율을 총 1.5% 포인트 인상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식품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3.5%를 기록하며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중국정부는 식품가격 급등에 기인한 물가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비축물량 공급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음.
-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1.5(1월) → 2.7(2월) → 2.4(3월) → 2.8 (4월) → 3.1(5월) → 2.9(6월) → 3.3(7월) → 3.5(8월)
- 중국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모기지 계약금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고 6월에는 모기지 계약금 비율을 기존의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9월부터는 세 번째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실시함.
- 올해 4월 부동산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12.8% 상승하여 통계 작성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5월 12.4%, 6월 11.4%, 7월 10.3%, 8월 9.3%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음.

3. 대외거래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

- 2009년 상품수지는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30.8% 감소한 2,49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전년 대비 31.8% 감소한 2,97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도 상품수지는 2,0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내수진작으로 인한 수입이 수출 증가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경상수지도 2,755억 달러의 흑자 시현이 예상되지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감소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2조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

-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의 유입 등으로 2006년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한 이후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2조 4,160억 달러에 달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727억 달러(2006년) → 835억 달러(2007년) → 1,083억 달러(2008년) → 950억 달러(2009년) → 670억 달러(2010년 1~8월)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상 수 지	253,268	371,833	436,107	297,142	275,460
경 상 수 지 / GDP	9.1	10.8	9.9	6.1	4.9
상 품 수 지	217,746	315,382	360,680	249,513	204,529
수 출	969,682	1,220,000	1,434,600	1,203,800	1,504,789
수 입	751,936	904,618	1,073,920	954,287	1,300,260
외 환 보 유 액	1,068,493	1,530,282	1,949,260	2,416,044	..
총 외 채 잔 액	325,077	373,635	398,832	370,827	437,685
총외채잔액/GDP	11.7	10.8	9.0	7.6	7.8
D S R	2.4	2.2	2.0	2.3	1.5

자료: IFS, EIU.

- 한편, 중국정부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확보 등의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M&A 장려 등에 주력하고 있음.
- * 실제로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SINOPEC)는 2009년 6월 스위스 석유회사 아닥스를 72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동년 7월 SINOPEC과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는 미국 4위의 석유업체인 마라톤 오일이 보유한 앙골라 기름지대(오일블록) 지분 20%를 13억 달러에 매입

□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박으로 인한 위안화 가치 상승

- 중국인민은행은 2008년 7월부터 2년간 달러에 페그되어 있던 위안화 환율에 대해 2010년 6월 '관리변동환율제'를 재시행함. 이후 9월 30까지 달러화 대비 1.89% 절상됨.

□ 양호한 외채상환 능력

- 2009년 총외채잔액은 3,708억 달러로 절대규모는 큰 편이나 GDP 대비 7.6% 수준이며, 외채원리금상환 비율(D.S.R.)이 2.3%를 기록하고 있음.
- 2010년에는 총수출 증가에 힘입어 총외채잔액/총수출과 외채원리금상환 비율이 각각 24.1%, 1.5%로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후진타오 중심 지도체제로 안정된 정치 상황 지속

-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6기 전당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된 후진타오(胡錦濤) 중심의 지도체제는 경제정책을 기존의 선부론에서 균부론으로 전환하였고, 균형발전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정부는 이를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민소득 증대 등 빈부격차 해소를 추진 하는 한편, 노동자 권익을 위한 분배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소득격차와 소수민족 독립요구로 인한 잠재적 불안요인 표출

- 지역간, 도농간 경제격차와 성장률 둔화에 따른 실업증대 등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고, 특히 경기불황에 따른 구조조정과 폐업 등으로 실업률이 9%를 상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자 증가가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문제와 맞물려 사회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도시지역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졸인력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2009년 기준 잉여 노동력이 2억 명에 달하여 어려운 고용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한편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소수민족을 둘러싼 불안요인이 상시 잠재해 있음.
 - 2008년 3월 티베트 독립요구 시위, 2009년 7월 신장 위그르족의 시위 등이 발생하여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3. 국제관계

□ 미국, 일본과는 긴장관계 지속, 주변국가와는 우호관계 강화

- 위안화 환율, 대만 무기판매, 오바마의 달라이라마 접견 등으로 미국과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로 자국내 실업증가 등을 야기한다는 판단하에, 위안화 절상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과는 최근 발생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문제로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대만, 러시아, 아세안,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협력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음.
 - 대만과는 친대륙적 성향의 마잉주 총통 당선 이후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대만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을 체결하였고 양국간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또는 철폐)로 무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러시아와 국경분쟁 타결, 금년 러시아 원유 파이프라인을 개통 등 정치, 경제적 우호관계가 확대됨.
- 세계금융위기 직후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였고, 아프리카 지역에 원조를 바탕으로 한 자원확보에 적극나서는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총외채잔액 절대규모는 크지만 대외지급 능력 양호

- 2009년 총외채잔액의 절대규모는 큰 편이지만 GDP 대비 7.6% 수준이고, 외환보유액이 2조 달러를 상회하고, D.S.R.도 2.3%로 매우 낮기 때문에 대외채무로 인한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단기외채는 2,067억 달러로 총외채의 55.7%를 차지하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안정적인 국가 신용등급 유지

-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 안정된 외환시장 등을 바탕으로 OECD 2등급, S&P A+/Stable, Fitch A+/Stable, Moody's A1/Stable의 높은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1 (2010.10.)	B1 (2008. 2.)
OECD	2등급 (2010. 4.)	2등급 (2009. 4.)
S&P	A+ (2008. 7.)	A (2006. 7.)
Moody's	A1 (2010.10.)	A1 (2007. 7.)
Fitch	A+ (2007.11.)	A (2006. 9.)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8월 24일(북한과는 1949년 10월 6일)

□ 주요협정: 무역, 투자협정(1992년), 문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원자력협정, 세관협력협정(1995년), 복수사증협정(1998년), 어업협정(2001년) 등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중국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중국	2007	2008	2009	2010. 1-8	주요품목
수 출	81,985	91,389	86,703	75,14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등
수 입	63,028	76,930	54,246	45,723	반도체, 컴퓨터, 철강관 등
합 계	145,013	168,319	140,949	120,867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09년 말 기준 교역규모는 1,40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5.1% 감소한 867억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29.5% 감소한 542억 달러임.
-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품은 2010년 8월 말 기준으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등이고, 수입품은 반도체, 컴퓨터, 철강관 등임. 중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우리기업의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6월 기준 제조업을 중심으로 21,143건, 약 309억 달러(투자누계 기준)를 기록하였음.
- 2010년 상반기 제조업이 총투자금액의 61.6%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22.3%), 도매 및 소매업(5.9%), 과학 및 서비스업(3.9%) 순임.
- *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등 IT 분야의 비중이 37.4%로 우리나라 대 중국투자의 주축을 구성
- 한편, 대 중국투자는 여전히 동부 연해지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중서부지역 투자는 미미한 수준임.

V. 종합 의견

-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대외수요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2008년 말부터 실시된 경기부양책이 지속될 예정인 데다 도시화 추진, 소비촉진 등 내수진작으로 향후 고도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책 이후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버블발생과 대외수요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확대된 여신의 부실화 개연성이 있지만, 당분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도 기후불순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정치적으로는 실업률 증대, 지역간 소득격차, 소수민족의 독립 등 일부 사회불안 요소가 내재하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균형발전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전문연구원 박 종 국 (☎02-3779-6673)
E-mail: parkjk@koreaexim.go.kr